

지배 2, 3차 확산이 일어날 때, 대부분의 대중시설이 문을 열었을 때 모든 교회에서는 '비대면'으로 하려고 했다. 여기에도 객관적 기준이나 공정성이 없었다. 결국 교회는 정부에서 발을 부끄러, 구상권 청구, 교

생명의 말씀



양정섭 목사

· (사)한국기독교개회교단
· 협의회 대표회장
· 평안교회 담임

"내가 신을 행하여 눈을 둘러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에 있도나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시키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지시는 자가 홀로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지시는 자는 홀로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너를 지지시는 자로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고리가 되시니 내 발의 발도 너를 지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지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너 내 영혼을 지지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극히 영원히 지지하시리로다"

사본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평생을 여호와 의 은총 속에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본이란 태어난 면서부터 도움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도움이 없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국에 수만보 코리안탈레 목사 1500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삽니다

시 121:1-8

명이 모여 세마를 하였습니다. 하루 전에 대통령께서 대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대 수행원이 50명이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저를 대하여 관박 놀란듯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도움이 필요하셨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부터 부처, 가난한 사람을 막론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에 사명을 귀신이라도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귀신이 삶에 무슨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 말은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말로 생각됩니다. 사람은 더더구나 병들면 더욱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내 발로 가다가 두발로 걷다가 세발로 걸어 인생을 마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라듯 지팡이라도 의지해야 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구약시대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 되었습니까.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들 길은 순탄하지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존한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평수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뜨겁게 내리 쏘는 태풍에도 싸워야 했습니다. 밤에 안 보이는 추위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인생의 행로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심각한 질문 하나가 '나의 도움이 어디에 있도나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은 한결같이 고달픕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바로 왕 앞에선 아담은 130년 동안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인생은 고달픕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은 힘이 듭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은 병마와 싸워야 합니다. 뜨겁고 힘들었던 여정이 가고 요사는 찬바람이 불고 성령 기름의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지 없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는 물론 지구엔 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이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기를 극복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펼쳐져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에서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응답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사본이란 미래 지향적 꿈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는 괴롭고 슬프고 고달픈지만 인생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고달픈 길을 가는 이스라엘 앞에는 빛과 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복지에 돌아가기까지 살아 40년을 지나야 했고 수도 없는 전쟁과 갈등으로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애물을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인생행로의 길은 작게는 한 살 때부터 장수하면 1세기를 넘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길은 좁은 길만이 아니고 괴롭고 괴로운 길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여러모로 도움을 받아야 살아야 합니다. 오직 전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인생일초도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절대로 실망과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뜻을 두고 소망 중에 미래 지향적인 꿈을 안고 살아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사본이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여러모로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그러므로 의지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셨습니까. 현재 우리의 삶속에 역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민도 주관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홀로도 앉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고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빛의 해와 달의 발도 해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 힘을 얻고 한창히 복수하기 위해 자비와 사랑을 같은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히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여호와를 너를 지지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네 영혼을 지키신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극히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우리의 삶속에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도움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예수는 하나님과 30년을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장어를 극복하고 꿈을 갖고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는 방주를 행하는 자에게 치료해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간절 한 것까지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내게 인애나 화가 내 안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남은 인생이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지키시고 상하하지 않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자비로 영원까지 지키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평생을 하나님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병 고침도 받고 하나님의 은총도 받치고 성령이 충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영원한 천국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 정

한남대 외국인 유학생 졸업식



한남대학교(이광섭 총장)가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후기 학위수여식을 취소했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졸업식을 마쳤다. 한남대 이광섭 총장은 지난 8월 26일(목) 오후 2시 본관 2층 총장실에서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대표 3명을 초청해, 자작만 뜻 깊은 졸업식을 진행했다.

롯데이비스 나눔대사에 이혜숙



롯데이비스가 배우 이혜숙을 롯데이비스 나눔대사로 위촉했다. 이혜숙은 지난 8월 18일(수) 밝혔다. 이혜숙은 롯데이비스 사업과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며 국민의 아동 권리 증진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게 된다. 이혜숙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눔을 전하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동대, 모형차 자율주행 대회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홍)는 지난 8월 20일(금) '제3회 SW 중심대학 연합 모형차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한동대학교 SW 중심대학지원사업단 주관, 동명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안동대학교와 공동주최로 총 18개 팀, 60명의 학부생이 참가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정균 장로, 미주대신학역 명백



이정균 장로(한국교회신보 사장, 대신장로교 목원 원장, (주)성현 대표)는 선교와 장학사업 등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9월 3일(금) 한국기독교회관 조예실에서 미주 대한신학대학원(총장 이상규 박사) 명예 신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이정균 장로는 신명종교의 원로장로이다.

한국교회연회

논평

아프간 난민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아프간이 미군 철수 후에 대환란을 겪고 있다. 지난 15일 탈레반에 의하여 수도 카불이 점령당한 후 아프간을 떠나는 난민들은 주(主)마다 수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 카불이 점령당한 후 불과 약 10일 사이에 5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난민은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세계 각국은 인도적 차원에서 서로가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절대 그렇지 못하다. 그것은 2015년 발생한 이라크 난민의 전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리아는 670만 명의 난민을 양산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만들

아편 무역업에 국한된다.

2015년 당시만 해도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시리아의 대규모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슬람이라는 강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무슬림들은 세계 여러 곳에서 범죄와 살상을 저질렀다. 그것을 경험한 여러 나라들은 이런 아프간 난민 사태에서는 절대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사실 유럽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에 무슬림으로 인하여 그들보다 나은 자에게 진행한 '다문화 정책'이 실패하였음을 전

들이기전 종교에 대한 집착과 집점이 강하여, 전 세계에 흩날리는 아프간 그들의 폭력적 신념을 버리기 쉽지 않다.

아편이 아프간을 탈출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탈레반이 살려서 자신들의 나라를 떠나는 것이다. 그들의 종교를 버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지난 27일 아프간 난민 30여 명이 들어왔다. 이들은 우리 정부의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 협력자와 가족으로 알려졌다. 그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슬람은 전 세계에서 주요한 대리의 핵심이다. 미국이 아프간 전에 개입하게 된

것도 지난 2001년 이슬람에 의한 9·11 테러 때문이다. 이때 무고한 미국 사람 3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들이 가진 종교 특성 때문이다. 아편이 아프간을 점령한 탈레반도 그들이 신봉하는 '차리야트'에 우선한다고 전쟁하였다.

이슬람은 다른 종교에게 호혜(互惠)를 베풀지 않는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만이 그렇다고 하지만, 그들이 믿는 코란에도 폭력을 정당화하고(교란 2장 216절, 5장 88절 등) 또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교란 8장 55절, 9장 39절 등) 그런 종교적 신념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과 동거하는 것은 많은 불편과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이슬람은 이것을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슬람과 사람들을 국제에 들어오도록 무조건 받아들이기 보다는, 국제 사회가 노력하여 아프간 난민들의 근거지를 만들어 주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하

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무슬림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자신들의 폭력과 살인과 비인권의 종교적 신념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인류애의 보편적인 종교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 아프간에는 1-2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이들을 구출하는 것도 급한 일이다.

아프간 난민 문제, 안타깝고 복잡하지만, 성경과 종속의 인도주의를 지양(止揚)하고, 신중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세계 모든 인구의 인류애를 인정하지 않는 이슬람 난민의 유입이 결코 성경적이지는 안 된다.

과거 아프간의 탈레반은 한의 기독교인들을 무절제한 살해하기도 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어려움을 만난 난민들을 위하여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2년도 목사고시 공고

2022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21. 8. 31(화)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 자료실 → 서식다운로드 → 고시서식 →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 2부 작성 → 지방회에 제출 → 지방회위원장 심의 →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21. 9. 09(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21. 9. 30(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21. 8. 31(화)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22. 2. 7(월)~8(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과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제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신재영 고 시 위 원 장 목사 이석호
총 무 목사 이경진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김영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1 전국 여교역자국

조직

인원

전국

지부

장

예배부장 정백원 목사 조병희 목사	신교부장 신교부장 김순자 목사	복자부장 복자부장 이복순 목사	봉사부장 봉사부장 김종애 목사	홍보부장 홍보부장 안선자 목사	재정부장 재정부장 김진애 목사	행정부장 행정부장 추경희 목사	기획부장 기획부장 이연순 목사	행사부장 행사부장 이연순 목사	친교부장 친교부장 조은혜 목사
서울지부 서울지부 정현자 목사	부산지부 부산지부 정현자 목사	대구지부 대구지부 정현자 목사	인천지부 인천지부 정현자 목사	광주지부 광주지부 정현자 목사	대전지부 대전지부 정현자 목사	충청지부 충청지부 정현자 목사	전라지부 전라지부 정현자 목사	제주지부 제주지부 정현자 목사	한국총회 한국총회 정현자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 여교역자국

국장 백영자 목사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본부장

실무회장

상임회장

진등용 목사 이두영 목사 박노섭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은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김병환 목사

고문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윤 목사, 김형태 목사, 신상우 목사, 이영한 목사, 임기석 목사, 연용희 목사

자문위원 이명수(국회의원), 강훈식(국회의원), 오세현(아산시장), 고재권(아산경찰서장), 황재만(아산시의장), 강희복(전 아산시장), 박성기(U1대학교 교수)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본부장 이두영 목사

상임회장 진등용 목사, 노선용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도승현 목사, 임용석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준화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귀환 목사, 은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손 혁 목사, 김병환 목사, 박차영 목사, 박판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관호 목사, 김득수 목사, 박봉순 목사, 송화섭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최순식 목사, 김완진 목사, 백현기 목사, 김준호 목사, 김성구 목사

지도위원 이광로 목사, 서석웅 목사, 장현원 목사, 정현환 목사, 유돈상 목사, 이덕희 목사, 김성권 목사, 박익구 목사, 조계성 목사, 김의중 목사, 유현희 목사, 고영기 목사, 김청환 목사, 임태일 목사, 이재두 목사, 김주섭 목사, 김현준 목사, 송화섭 목사, 박덕수 목사, 구자범 목사, 안덕근 목사, 안홍규 목사, 고영기 목사, 박성화 목사

부회장 정진학 목사

사무총장 정진학 목사

상임총무 차추병 목사

후원회 회장 차추병 목사

후원회 차추병 목사

총무 차추병 목사

서기 정수희 목사

회계 관인숙 목사

재무 이은혜 목사

회원 아산시 400교회

배성만 목사, 이세영 목사, 임해성 목사, 김중권 목사, 정미숙 목사, 권필희 목사, 안상욱 목사, 안준호 목사, 홍은식 목사, 김희석 목사, 오세현 목사

한상문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자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홍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의덕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선 장로, 이상식 장로, 광동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운 장로, 박노환 장로,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택 장로 (외 각 교회 장로)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 1) 폐농성물집
- 2)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3)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4)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5)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한계고)
- 6) 뇌혈관 질환,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간지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 7) 호르몬, 위,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 8) 사포닌 : 면역력 증가
- 9) 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밀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 10)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 11) 7)식이섬유 : 타식물(대리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 호서대연구논문)
- 12)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 13)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 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 14)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밀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70인 천년초식품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있음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미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동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제작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 동말레이시아 선교보고

코로나 중에도 선교지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는 와중에도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시고 환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롱!

동말레이시아 은혜와진리교회 선교지에서 당회장 조을목 목사님께, 말레이시아선교회를 비롯한 세계선교연합회 회원 여러분에게 인사 드리며 8월 선교지역 보고를 드립니다.

코로나 독감 전염병이 창궐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힘과 지혜를 주셔서 여러 마을을 새 선교지로 개척하였습니다. (새로 개척한 마을의 지역명: 팡싱 & 노이동 & 남가 캐시 트레카 무복 수봉 & 남가 마헤일리 & 남가 마헤 울루 & 루부인투)

전염병으로 인하여 저희 사역자와 신자 모두가 애

통하며 힘든 가운데 시간을 보내지도 벌써 2년이 다되어 갑니다. 이러한 중에도 저희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과 자비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어김없이 저희에게 새로운 활과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한자리에 선교지로 향하게 하십니다.

저희의 머리맡 수까지 다 헤아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모두와 함께 해주시며 사랑으로 저희를 감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으로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인에서 한 항해자만 된 저희 서리가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면서 담담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교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각 마을의 가정을 심방하여 기도사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도

관청과 마을 지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아 무상 캄라탄을 비롯한 몇몇 오랑아슬리 지역지는 현재 지역봉쇄(락다운)로 인해 아예 방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웃 은혜와진리교회 동말레이시아 여러 성전과 저희 사역자들을 위해 변함없이 기도해주시고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우리 은혜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보아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11월에 다시 선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십니다.

2021년 8월 30일

동말레이시아 은혜와진리교회/
반센트 마니암 목사 드림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문적인 병동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위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들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며,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 사랑의집 연혁

-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생활가정)
-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 사랑의집 시설장

- (박흥열 목사 수임경력)
- 2007. 10. 3 이천국회의원 표창
- 2014. 12. 13 이천시장 표창
-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표창
- 2020. 12. 18 이천시장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올면 금율로 828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 산하 지방 신학교

2022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한 명 전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전구 새하로 95번길 14
- T E L : 0510803-3927
- F A X : 0510581-0988
- e-mail : yhsos3927@hanmail.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675-3171
- e-mail : changdean@hanmail.net



(학장 최 정 식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김 상 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생 : 한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육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작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73-2705
- e-mail : ho-gi@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 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빌 8
TEL: 02-2675-5181 ~ 3 FAX: 02-2677-5181

미래사회 대비 새로운 교육혁신안 마련

GVCS글로벌선진학교 코로나로 입시설명회 개최 못해…관심과 지원 당부

GVCS글로벌선진학교(이사장 남진석, 이하 GVCS)는 지난 8월 30일(월) 교가(가)간담회를 열고 미래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바이러스의 출현에 따른 비대면 교육의 요구에 부응하며, 4차 산업에 부응할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부의 '2022 교육혁신안'에 앞서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새로운 교육혁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선진학교의 졸업생들이 매년 50~100여명에 가까운 장학금을 해외대학으로부터 장학금(중복포함) 없이 비추어 볼 때 전 세계에 산재한 다양한 혁신대학으로 학생들을 장학금으로 진출시키기 위하여 이에 앞서는 진로진학기반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또한 바이러스 시대의 교육변화 중의 하나인 온라인 콘텐츠교육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대두되는 가운데 혼합학습(Blended Learning)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하여 음성, 문장, 미국, 세종 캠퍼스 간 강의와 수업공유는 물론 전 세계의 우수강사를 학생들이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런 GVCS 2022 교육혁신 기운에 가장 큰 변화는 캠퍼스별 특성과 장점을 반영할 수 있다. 중학교 과정은 각 캠퍼스가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글로벌 특화 교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창의 융합교육에 기반하여 기존 기반교육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되어있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학업하게 특성화하여 교육의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혁신안을 내고 있다. 융합캠퍼스는 국내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북미, 유럽,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제 학생들을 장학금으로 보낸 경험을 바탕으로 고등학교에 입학까지 전공이나 미래의 직업적 비전을 정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을 교육하여 일종의 '꿈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교육'에 집중할 방침이다.

융합캠퍼스는 융합교육에 비하여 어느 정도 미



래의 진로에 대하여 꿈을 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4가지 트랙을 제공하여 구체적으로 대학입시와 미래 설계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방침이다.

미국정부캠퍼스는 중학교 과정에서 영어중점인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교육, 고등학교과정은 전통적인 Prep School의 기능에 STEAM 융합/반교육을 함하여 보다미래진학과 장학금을 만들기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준비해나가기 위해 된다. 장영캠퍼스는 지난해 10월에 개교한 1~12학년 초·중·고 통합 기숙형 통합 학교로서 내년 봄학기 학교개학을 준비 중이다.

오로지 비전화나 비전포럼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학교가 2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역사 속에서 합법적 캠퍼스를 조성하고 공인된 교육과정을 통하여 정부로부터 공식인가를 받아 운영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으며 글로벌선진학교는 이를 이루어냄으로써 교육계의 기적을 보고 있는 듯하다는 말이 다수의 평가로 할 수 있다.

글로벌선진학교는 기숙학교로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일종의 코로나 청정지역의 효과를 특별히 볼 경우도 있다. 일단 기숙사에 입소하면 외부와의 차단 효



과 때문에 수업 손실이 없고 학습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져서 예전보다 더 나은 학습 성취를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을 위한 학교개방행사를 할 수 없고 예비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방문이나 재학생과의 만남이나 교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학생 충원을 급격하게 감축했다. 코로나 1차 시기 중만 봉쇄가 두 번에 2021년 가을 학기까지 4학기 동안 융합캠퍼스는 평균 매 학기 50% 정도의 미충원을 보임으로써 도합 약 20%가량의 학생이 미충원되었다.

정부의 발표대로 11월이 되면 전 국민 약 70%가 동성소년 제외하면 100%가 백신 최종접종을 하게 되고 의미있는 치료제가 개발될 것으로 보아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해지리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기술혁명이 교육혁신으로 앞으로 재정후원을 받을 수 있었던 지난 2019년 아이온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교육을 통한 하나님의 인재양성 사역이 중단 없이 계속 되리라 본다. 다음세대 하나님의 인재양성 담당하여 가뭄이던 글로벌 선진교육을 재조각할 수 있도록 선한 목자(가)의 헌신과 헌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www.gemgem.org

신간 안내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



꿈꾸는 사람으로 알려진 요셉 그라나 저자는 요셉의 꿈이 아닌 그의 삶 중심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한다. 아버지의 관에 속해서 안락무인(안락무인)은 형들의 침투로 패자가 된 구원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후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동행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요셉의 삶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었다! 저자는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처럼 단순한 사람이었으며, 그렇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던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매일이 힘겹고 옆에 아무도 없었다고 느껴졌다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언제나 내 편이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길 바란다. 저자: 홍인기 | 출판사: 규장

발행일: 2021-08-17 | (128*188mm 176p) | 판매가: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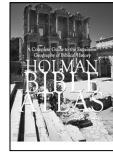
토머스 머튼 이야기



이 책은 그의 출생 이후 성장과 교육 과정, 회심과 수도 성소를 거쳐 수도자로써 종신 서원을 할 때까지 그가 경험한 삶을 다룬다. 머튼의 생애를 제대로 조망하려면 성숙한 머튼뿐만 아니라 그의 어두운 인생 전반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시기에 머튼은 양부모의 죽음, 외로움과 실패, 자기중심적인 삶과 폐쇄, 병환으로 인한 추락을 경험했으며, 병환으로 마비되었던 장소와 소중했던 만남에 대한 기억을 썼고, 결국 성소로 들어와 위대한 학식을 하게 되었으며 수도자가 되어 마침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게 된다. 토머스 머튼 이야기는 그 머튼의 삶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망한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진정한 그 자신이 되게 하시는지를 자세히 보여준다. 저자: 오영선 | 출판사: 새물결플러스

발행일: 2021-08-25 | (152*225mm 422p) | 판매가: 20,000원

[2판] 두란노 성서지도



성서지리는 시간의 흐름인 성서 역사가 공간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역사의 현장을 연구하기 위해 성경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성서 역사의 길을 그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성서지리를 연구하고 기록하는 필자는 성서지도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에 좋은 성서지도가 출판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동안 성경에 나온 장소를 찾기 위하여 성경을 탐험하여 성경의 성서지도의 중요성을 배지리게 느껴 왔으며 부경학원 지도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는지 체감하고 있다. 몇 년 전 요르단에서 탐사하면서 오래 전에 나온 한자의 지도가 부경학원서 잘못된 장소를 담았었다가 후회 다짐하는 고생을 하기도 하였다. 좋은 지도 한 장에는 한 글자의 책임이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저자: 토마스 V. 보스코 | 출판사: 도서출판 두란노

발행일: 2021-08-01 | (220*280mm 344p) | 판매가: 80,000원

예총연 신학협의회 제21차 신학세미나 개최

‘언어, 지리, 문화의 창으로 성경번역 다시보기’를 주제로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이사장 유영섭, 대표회장 김경희, 이하 예총연) 신학협의회 회장 김경희 목사(예총연 2월 21일(목) 오전 11시)는 전도화관 2층 대강당에서 제21차 신학세미나를 개최하고 성경을 바로 보고 바로 이해하는 목회자 재교육 과정의 확대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진명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세미나는 한준영 목사(신학협의회 부회장)의 기도, 권중근 목사(신학협의회 부회장)의 성경봉독, 문인주 목사(신학협의회 총무)의 감사 소 개소로 이어졌다.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권성달 교수(성경학)의 학회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권 교수는 언어, 지리, 문화의 창으로 성경 번역 다시보기’라는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바른 복음 전부를 위해 바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해브리언에는 자음과 모음이 각이 짝마다 ‘예멘트 사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음이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예멘트는 사인이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더욱 중요한 역할이 있다. 바로 풀이하기의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권 교수는 “성경이 10장 21절에는 ‘온 아벨의 형제’가 등장한다. 이 구절이 아벨이 크다는 건지, 아벨의 형제가 크다는 건지 어떻게 번역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면서 “우리 말과 다른 히브리어의 특징에 주의해서 성경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판 성경에 등장하

나의 아름다운 엄마, 김영희



2021년 가을, 89살 된 아들 소제은은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프던 엄마를 위해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엄마와의 추억을 끊임없이 메모하고 60여권을 적어 내려갔다. 엄마가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엄마의 사랑 덕분에 아이도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었음을 알려드리기 위해 책을 썼다. 2021년 봄, 완성된 책을 가족 소장용으로 10권 소장 제작해 나누었다. 엄마는 아들의 책을 보며 기뻐했지만, 충분히 기뻐하지 못했다. 여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1년 8월 28일, 결국 엄마는 세상을 떠났다. 아들은 장례식에 엄마가 평소 바라는 성경말씀 함께 책을 봉헌했다. 아들은 장례를 마친 후 이 책을 리뉴얼해 엄마를 아끼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저자: 소제은 | 출판사: 훈민

발행일: 2021-08-20 | (132*195mm 145p) | 판매가: 10,000원

는 사물과 식물, 계절과 표현 등이 상당 부분 ‘문화적’인 의미를 가진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성경을 바로보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학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희에 이어 강진명 목사의 인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코로나19 보상을 위해 끈기있게 헌신으로 기도한 의의와 거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성경을 바로보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학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희에 이어 강진명 목사의 인도로 나라와 민족을

5년에서 아홉

최후정권을 준비하는 반대한 1만명이 컵 불꽃 두 지어 판지(지)·프린트(지)에 집결하여 탈레반에 맞서 저항 세력의 최후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판지 시에서 인텔과 살해 부동령과 국민영웅 고(故) 아흐마드 사 마수드 장군의 아들 아흐마드 마수드가 반군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 여기에 바글라만에서도 일부 지역인 하지만 탈레반 세력이 작전했다는 미국 의소리(VOA) 방송은 8월 21일(현지 시각) 소식을 전했다. 3개월간 반 탈레반 저항 세력이 모여 인신취 탈레반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 북쪽 3개월간 반 탈레반 저항 세력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아프간 저항세력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탈레반은 집권하다 수세하여 기독교인들(가)나 서방국가와의 연락까지 가진 사람들이 발견되면 모두 사살하고 있다고 한다. 탈레반은 보복하지 않았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 전폭적인 폭력과 위협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SNS활동가(가)에 따르면 탈레반에 의한 대규모 처형한 장남정원은 인도주의를 거역한 탈레반의 이슬람 근본주의 정체를 폭

로하고 있다.

7. 미국은 아프간 국민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70년 한국 주둔차량 인출해야 했다.

카불이 급속하게 함락되자 미국 내(가)와 국제사회에서 비탄의 행진부 지기가 급박하고 있다. 영국의 전 총리 토니 블러는 미국의 철군이 “아직서도 비극적이며 불필요하다.”(imbecilic, tragic, unnecessary)고 평가했다. 뉴트 그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은 이날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이렇게 비탄하는 수십 년간 탈레반과 맞서 싸우며 미국과 동맹을 맺는데 목숨을 걸었던 용감한 아프간 사람들을 우리게 할 수 있는가”라며 “20년 전쟁 동안 미국인 2448명이 살진 데 반해 아프간 정부군은 30배 가까이 많은 66900명 정도를 잃었다고 밝혔다. 미국 전 국무장관도 카불이 라이선스 전 국무장관도 이날 워싱턴포스트에 “아프간 사람들은 탈레반을 선택하지 않았다. 우리와 함께 싸웠고 죽었다”며 미국의 완전 철수를 촉구했다는 주장을 폈다. 라이선스 전 장관은 “법대로 탈레반을 우리의 가장 큰 전쟁은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한국전”이라며 “그 전쟁은 미국을 2만8000명 이상 상고하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의 인권 균형, 한국이

만 소중한 동맹, 인도·태평양의 강력한 존재감을 성취했다”고 했다. 아프가니스탄은 한국이 아니다. 그러나 훨씬 적게 한산하고도 적절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콘돌리자 라이스의 지적처럼 미국이 이렇게 대대적인 철군하기 보다는 군 사교단원을 남겨두고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아프간 정부에 독립적인 입문을 인정했다면 적절할 결과도 가질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8. 유엔과 국제사회는 아프간 난민들과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 강구해야 한다.

아프간 정부의 최후의 날이 다가오자 카불의 지역에서는 폐쇄가 됐다. 외국인에 따르면 이날 탈레반의 공격이 압도적 카불의 하마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는 국외로 탈출하려는 인파가 몰려들었다. 이런 혼란 속에 카불로 밀려드는 파란만 상도 높아지고 있다. 바정부기(가)NGO 에이비브라드(가)는 최근 카불에 있는 파란만은 약 120만 명이 이들 중 7만2천 명이 아동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이들 난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기독교인, 성소녀, 기독교인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탈레반의 비인도주의적 제재와 처형을 못하도록 간섭해야 한다. 유무에 상관없이 탈레반의 무자비한 처형 정원은 철저히 지켜야 할 수 없을 지경이다. 그리고 여성과 아동의 인권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대한민국도 71년 전 625 동란을 겪었던 민족적 비극의 체험이 있다. 유엔은 이들 난민들의 인권 보장과 인권다 운 생활의 보장을 도와야 한다. 대한민국도 옛날 유엔의 도움을 받은 나라로서 이들 난민 구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9. 대한민국은 북한 핵에 대응하여 스스로 지키는 자체 방위 능력을 키워야 한다.

한미동맹을 축소하고 북한 핵이 보는 문정부는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에 빠지고 있다. 안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나라는 미국 철수와 함께 그 나라 정부도 몰락한다는 것이다. 미국 주둔은 그나마 안보에 필수불가결하다. 아프간 정부도 탈레반에 의해 몰락 위험에 직면해 있다. 미국 철수와 함께 1975년 내 베트남 사이공이 북베트남에 의해 함락되어 몰락하였다.

1949년 6월 30일 난민에서 미국이 철수하여 군사적 공백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에는 국제 정세에 밝은 이승만 대통령이 오늘날 같은 태풍 양자 동맹을 요구했으나 미국이 트루먼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1950년 소련은 한반도를 점령하기 위하여 김일성으로 하여금 남침하게 허용하였던 것이다. 만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미국 방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71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의 선진국 위상 확보와 함께 쿼드 합계가 미국으로부터 권위받지만 문제인 행정부는 중국의 견제를 보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거리고 있다. 심지어 중국등에 동맹하겠다고 한다. 신중국사대주의가 한 최강대국을 지배하고 있다. 분명해 알아야 한다. 이들은 북한 핵위협을 대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핵 우산에 지탱되고 있다. 1975년 베트남 사태, 2021년 아프간 사태는 한미동맹의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시켜주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경제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전문가의 우려적인 진단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북한을 전진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30지 부시 연설과 작정하였던 보수주의의 팔자, 미국의 권위자 워싱턴 포스트 칼럼리스트 마크 티센(Marc Alexander Thiessen)은 “한국도 미국 도움 없으면 아프간 꼴”이라는 언급은 한미동맹 스스로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깨우쳐야 한다는 경고다. 정부 지도자들과 북쪽 인사들은 각성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고 자책 안보의지와 굳건하게 길라야 한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미국 없이도 우리의 신장과 자유와 민주를 지키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2021년 8월 30일
실명을 공꾸는 나비현동

포켓형 스마트북 ‘올타리’ 창간

1백만 독자의 사랑 받던 샘터처럼 다양한 장르의 글 실려

전자문명 앞에 출판문화가 무너지고 있다. 출판문화 수호운동중앙회와 올타리출판문화비행에서는 책을 사랑하고 전자문명 앞에 출판문화 수호하는 뜻에서 스마트북 무궁화 올타리를 창간하게 되었다.

이성열 목사의 기획으로 준비된 포켓형 스마트북은 스마트폰에 해당 포켓북을 다운로드해서서 기꺼워졌다.

현실적으로 스마트폰은 모든 사람들이 받았다고 놓지 않고 들고 다니는 필수품이 됐다. 그 이유는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고대부터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랑하듯 책도 사랑하게 하려는 의도로 스마트 북이 발간되었다.

정부에서 영화, 연극, 풍물, 탐구 등에는 몇몇 몇몇만 원 단위로 지원하지만 창작 분야예술의 근간인 ‘출판문화’ 분야 보다는 몇백만 원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책을 가까이하게 하려는 의지로 ‘출판문화수호운동’을 펼치며 스마트북에 빠진 사람이라도 남자는 포켓에, 여자는 핸드폰에 스마트북을 가지고 다닌다 보면 자연 얻게 될 것이고 더불어 다른 책도 찾아 읽을 것이니 믿고 ‘올타리’를 볼 것이라는 데 뜻이 있다. 큰 대포도 작은 공이 노란을 채어 다가가면 작은 ‘올타리’가 출판문화 발전에 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개인에게 삶의 지혜와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작은 책 스마트북 ‘올타리’가 한국 출판계와 독자들에게 기쁘게 읽을 만한 전자책의 화성인 셈이다. 샘터를 읽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자원장이 될 것으로 믿는다.



스마트 핸드북 ‘올타리’의 수록내용을 보면 △간접적인 글로 △주요의 명사(김소월, 권 △시조시인(홍진아와 화담 △시인(이순진 △현대시(김소월, 성용 △장(태평) △수필(허승심, 황계정) △칼럼(문대영, 이연정, 최명덕) △공예(사정남의 구두 손질

행) △동화(인고배집 부엉이 심형정) △스마트소설(아미니를 만나다 이간숙) △항일투쟁사(김진경과 한민회 최용학) △명사 읽기(홍로코스트 △교육문화(정지아 조라니 이영희) △6.25사건(염두경 정연호) △여행기(한테르스 김관람 탐방) △세계명사(인생론 불교사)

등 한국 출판문화계 중진들의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유머, 밥 △스마트폰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 △삶의 뜻은 인생의 △카카오톡 톡톡 톡톡 △사자 속의 △외국어 한문(영어, 일어, 중국어) △탐구도 격인 등 개개인이 알아서 선택할 것 없는 다양한 글들도 실려 있다.

스마트북 올타리는 개간으로 발행되며 수록된 작품들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진행된다. 무궁화 포켓북(10×17cm)으로 제작됐으며 160쪽에 가격은 6천원이다. 전국 교보·영풍 문고, 교문사, 인터넷, 알라딘 등 전국 유명서점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스마트 핸드북 ‘올타리’의 수록내용을 보면 △간접적인 글로 △주요의 명사(김소월, 권 △시조시인(홍진아와 화담 △시인(이순진 △현대시(김소월, 성용 △장(태평) △수필(허승심, 황계정) △칼럼(문대영, 이연정, 최명덕) △공예(사정남의 구두 손질

행) △동화(인고배집 부엉이 심형정) △스마트소설(아미니를 만나다 이간숙) △항일투쟁사(김진경과 한민회 최용학) △명사 읽기(홍로코스트 △교육문화(정지아 조라니 이영희) △6.25사건(염두경 정연호) △여행기(한테르스 김관람 탐방) △세계명사(인생론 불교사)

등 한국 출판문화계 중진들의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유머, 밥 △스마트폰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 △삶의 뜻은 인생의 △카카오톡 톡톡 톡톡 △사자 속의 △외국어 한문(영어, 일어, 중국어) △탐구도 격인 등 개개인이 알아서 선택할 것 없는 다양한 글들도 실려 있다.

스마트북 올타리는 개간으로 발행되며 수록된 작품들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진행된다. 무궁화 포켓북(10×17cm)으로 제작됐으며 160쪽에 가격은 6천원이다. 전국 교보·영풍 문고, 교문사, 인터넷, 알라딘 등 전국 유명서점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월드비전, 아프간 긴급구호활동 시작

긴급구호 대응 최고단계인 ‘카테고리3’ 선포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경환)은 지난 8월 26일(목) 최근 아프가니스탄의 장기적 위기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구호 대응 최고단계인 ‘카테고리3’을 선포하고 긴급구호활동을 시작할 계획을 밝히고 밝혔다.

월드비전은 올해 5월 실랑위기 대응으로 긴급구호를 펼쳤으나 최근 아프가니스탄 정국 붕괴에 따른 인도적 위기 상황 심화에 따라 전 세계 월드비전 다 함께 모금과 지원 활동을 공동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월드비전에 따르면 현재 아프가니스탄 국민 중 1,800만여 명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36개 주 중 27개의 주에서 급성 영양실조 비율이 위험 수준이다. 2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 위험에 처해 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 56만 명이 국내 실업자의 처지가 되었으며 특히 여성 및 아동의 권리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통화가치가 하락하여 식량 및 주요 생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월드비전을 포함한 전 세계 월드비전은 15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과 긴급구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한국월드비전은 20만 달러, 20만 달러(한화 약 2억 4천만원)를 목표로 모금 캠페인을 시작한다. (한국월드비전 02-3778-7000)

월드비전은 2006년부터 20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긴급구호를 비롯하여 인도적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300명 이상의 현지 직원이 아프가니스탄 전역 4개의 주요 도시인 헤라트(Herat), 노르(Ghor), 파르야브(Paryab), 바드기스(Badghis) 주를



지역에 있다. 이에 한국월드비전은 20만 달러, 20만 달러(한화 약 2억 4천만원)를 목표로 모금 캠페인을 시작한다. (한국월드비전 02-3778-7000)

월드비전은 2006년부터 20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긴급구호를 비롯하여 인도적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300명 이상의 현지 직원이 아프가니스탄 전역 4개의 주요 도시인 헤라트(Herat), 노르(Ghor), 파르야브(Paryab), 바드기스(Badghis) 주를

지역에 있다. 이에 한국월드비전은 20만 달러, 20만 달러(한화 약 2억 4천만원)를 목표로 모금 캠페인을 시작한다. (한국월드비전 02-3778-7000)

월드비전은 2006년부터 20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긴급구호를 비롯하여 인도적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300명 이상의 현지 직원이 아프가니스탄 전역 4개의 주요 도시인 헤라트(Herat), 노르(Ghor), 파르야브(Paryab), 바드기스(Badghis) 주를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의 선한 영향력

현재 인기리에 방영 중인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에서는 생과 사의 경계에 있는 환자

와 가족들의 다양한 사연을 다루며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장기기증에 관한 소재가 꾸준히 방영되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시청자들의 장기기증운동부서인 장기기증 하 부분은 드라마에서 ‘뇌사 시 장기기증’에 대한

소재가 비중 있게 다뤄진 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가

동기간 대비 1배가량 상승했다고 밝혔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의 감동, 장기기증 희망등록으로 이어져 지난 5월, 시청자들의 장기기증 운동부서인 장기기증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시청자들의 등록

소감이 이어졌다. 문소현 씨(33세, 여)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통

해 장기기증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이식인과 가족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류현주 씨(49세, 여) 역시

“그동안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시청한 후 결심하게 되었다”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 기증하는 선택으로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이 되고 싶어졌다”는 소감을 밝혔다.

월드뷰티, 독거노인분들께 사랑나눔

8.15 기념 장수사진·뷰티서비스·대체식 전달

국제뷰티구조개발 NGO 월드뷰티월드(WB) 이사장 장영현, 회장 최혜선, 교수는 지난 8월 18일(수) 마포구 대흥동 (사)해동는 마을 월드뷰티노년회 강당에서 ‘8.15 광복절기념 장수사진 전달 및 뷰티서비스와 밥사

랑나눔’ 행사에서 장수사진과 밥사먹이로 대체식을 후원하고, 독거노인분들께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국제시장재단과 함께 코로나19로 외출이 힘들어 지쳐있는 후원회원과 독거노인분들 대상으로 월드뷰티월드(WB)의 뷰티서비스와 김장음식 작가를 지원

하고, 신생아1만명 지원금 전달을 기념 장수사진작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최혜선 이사장(왼쪽)과 뷰티월드 이사인 최혜선 교수는 거동불능한 어르신들을 위한 후원금 어르신들께 뷰티

서비스를 실시했으며, 장영현 WB 이사장, 장영현 사무총장을 비롯 해동는 마을 최혜선 사무총장, 최혜선 영양사, 구한의원봉사단장들이 참여했다.

최혜선 회장은 “코로나19로 소외된 어르신들을 뷰티서비스와 장수사진으로 섬김을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장영현 이사장(해동는 마을)은 “8.15광복절 맞아 나라

사랑을 후원하는 어르신들께 뷰티서비스와 장수사진작가와 시청의 대체식을 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사)월드뷰티월드(WB)는 행정안전부 승인 사단법인으로서 서울역 노숙자와 쉼터,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소외되고 어려운 우리 이웃을 대상으로 한 뷰티서비스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전문 소셜 서

비스 기관이다.

가족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전도 아카데미 원장

코로나 시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오직 전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오직 전도에 있습니다. 전도는 내 삶의 전부입니다”

박영수 목사가 청년 시절부터 접한 전도자의 길 43년의 노하우를 전한다. 2008년부터 시작한 글로리로 10년째 접히는 가족세전도아카데미가 양육문과 이 수 교수와 동역으로 제3기 시작을 시작했다. 가족세전도아카데미는 한국 기독교 10대 역사상 최초로 현장실습을 활용한 동영상으로 보면서 성공사례와 실패의 사례를 분석하고 대체식을 통해 가족세전도 전도를 목표로 습득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교육과정이다.

박영수 목사의 전도방법은 속전속결로 짧은 시간 안에 전도의 효과를 도모한다. 그렇다고 결코 형식적으로 하지 않는다. 학습성 있게 복음을 전하고 영감기도를 따라하게 하며 바로 신장카드를 작성하게 하고 교제까지 붙인다. 특히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쓰고도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박 목사의 세전도아카데미를 통해 배운 된 인원은 약 1만명여 명에 가까우며 이들은 가족세전도 훈련을 받고 온갖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밖에도 박 목사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성경치유 마스킨 전도집회를 통해 행진도시도지를 발굴, 전도의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훈련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덴버 한인교회, 워싱턴 한인교회, 중국 북경 한인교회, 도쿄 한

인교회, 필리핀 한인교회 등 해외에서도 가족세전도아카데미 지부와 한국에도 전국 대도시에서 6개 지부가 결성되어 많은 전도문사역자를 배출했다.

출전소장(가)와인교회 김지훈 목사, 구세군 노예길 영문장, 김요영, 채미숙, 새생명도약방 박미리, 강북신교교회 한태수 목사는 “세전도아카데미를 통해 30년 동안 마땅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진 성도들이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한다”면서 세전도아카데미의

효과를 자랑한다.

박영수 목사는 그동안 가족세전도아카데미를 통해 가르쳐 왔던 내용을 집대성한 ‘가족세전도법, 세전도자를 위한 영약교제’와 ‘가족세전도 심판10분실습집’ 153장 세전도 현장증거집을 출간했다.

목회자보다는 전도자라고 불리까지 길 원하며 전도가 삶의 희망이라는 박 목사, 마스크를 쓰고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전도현장에서 교제까지 붙이며 가족들이 전도되는 가족세전도(가)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를 살리는 전도의 대안이 될 것이다.

가족세전도아카데미 대표 총재 박영수 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3>

가족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632-1691, 0103730-2573

평하는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21-40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혜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마비칼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질로 알려져 있어, 소금물로 건강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컵술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로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쪽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 살균 5.편도 보호 6.감기 예방 7.혀 기증 예방(소금물 양치, 기증의 효능)

365 치아 건강비전 옥금수

충치·풍치·잇몸질환 옥금수(소금물)로!!

500ml
30개들이 33,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www.encyber.com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영남기독교 총연합 성명서 / 부·울·경·경북 기총 및 대구 대목연 평화로운 자유 대한민국에 수많은 트로이 목마 (木馬)가 밀려오고, 발람의 꾀계가 넘치는 도다!

난공불락의 트로이 성(城)은 그리스 연합군이 두고 간 거대한 목마(木馬)를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로 졸지에 무너지고 말았다. 겉으로 보기엔 적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물로 바친 후 버리고 간 거대한 목마였지만 그 속에는 그리스 연합군의 날랜 군사 30명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목마에서 기어나 온 그 30명의 군사들은 성안 곳곳에 불을 지르고 성문을 열어 제쳤다. 그리고 물밀 듯이 쳐들어온 잠복해있던 그리스연합군에 의해 난공불락의 트로이성은 속수무책으로 처참하게 함락되고 말았다.

한편, 출애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와 열병의 심판을 당하였다.(신22~25장) 그것은 거짓 선지자 발람이 뇌물을 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 하는 것임을 모암 왕 발람에게 귀뜸 해 주었기 때문이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목에 산해진미의 우상의 재물과 현란한 여인들의 향연으로 올무를 놓아 이스라엘을 현혹하였다. 그날 그곳에 몰려간 이스라엘 남정네들은 온통 주지육림의 음란의 도가니에 빠짐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계2:14) 결국 그날에 이스라엘은 2만 4천명이 죽임을 당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교회)이 범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다는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바로 이와같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것은 낮은 연방제 통일 즉 북한식 사회주의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나선 문재인 정권이 연일 '트로이 목마'를 평화로운 대한민국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목마들은 실로 다양하다. 먼저 소위 '포괄적 소수 차별 금지법'(평등법, 건강가정 기본법 등)이란 것이다. 그 목마 안에는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며, 건강한 가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同性愛)의 합법화가 숨겨져 있다. 다수가 오히려 소수에 의해 역차별 당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박탈되고, 특히 기독교의 본질과 신앙생활이 억압 통제당하는 독소 조항이 교묘히 숨겨져 있다. 이 법은 이미 폐지된 간통법 낙태법과 함께 3중 패키지 음란 조장법에 다름 아니다. 이는 전 국민들을 음란과 환락과 패륜과 태아(胎兒) 살인의 극치를 이루게 하며 이러한 변태적 행위가 합법으로 보장받는 나라로 개조(改組)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악법은 발람의 올무와 같이 필연적으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 인류 최초의 심판이었던 노아 홍수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에 이르게 한 마지막 수순이 바로 그러한 범죄였다.

뿐만이 아니다. 지금 집권 여당의 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주민자치 기본법'이란 목마 속에는 실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실현을 위한 밑자리 깔기와 같은 무서운 기본법이 주민 자치란 이름으로 교묘히 포장되어 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등을 담아 언론에 확실한 재갈을 물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란 후안무치(厚顔無恥)한 목마도 끌어들이고 있다. 이 정권은 4년여 집권 기간에 소득주도 성장법 목마, 주 52시간 근로법 목마, 과도한 최저임금법 목마, 비정규직 철폐법 목마, 원전 폐쇄법 목마,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등을 담은 패스트트랙 4법의 목마 등등 근 3,500개가 넘는 트로이 목마들을 끌어들이었다. 그리고 계속 끌어들이 준비된 목마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목마들은 정상적인 국가경영을 위한 조치들이 아니라 범죄이다. 이것들은 북한과의 연합을 목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들려는 철저히 준비된 대한민국 판 트로이 목마라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수많은 목마 속에 감춰진 비밀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 신종(新種) 목마는 '코로나19 방역법'이라는 정치 방역 목마이다. 이것은 이 정권에 있어 지난 1년 반 동안 요술 방망이같이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전천후 목마이다. 그런데 이 목마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의 전 사회적 분야에 미치는 방역 법(法)이지만 유독 기독교의 목을 조이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확실히 장악 통제하려는 목적 있는 정치 방역임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북한식 사회주의로 가는 길목에 가장 큰 장애물은 기독교이기 때문이다. 이미 저들은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두고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지금 수도권과 대전 전역과 경남 일부 지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를 적용하면서 수도권의 경우 교회당 안에 최대 99명까지만 허용되되 수용인원 100명이라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만 가능토록 극약처방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 가관(可觀)인 것은 과학적 의학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소도 웃을 극약처방을 받아도 절대다수의 특히 대형교회 지도자들이 맹인이요 짓지 않는 병어리 개들이 되어 묵묵히 따르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사실상 게임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대로 트로이 목마처럼 나라도 교회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완전히 점령당하고 말 것인가? 결코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부산, 울산, 경남, 경북의 각 기독교 총연합회와 대구 목회자 연합회, 장로 연합회는 골리앗 앞에선 다윗의 거룩한 분노와 행동하는 믿음으로 분연히 일어났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과 주님의 경건 교회와 올바른 신앙을 순교의 각오로 사수(死守)할 것을 다짐하며 본 성명서를 만방에 댄다.

【국민들에게 묻습니다】

- 정치와 노동을 제외한 모든 분야가 선진 국가의 반열에 오른 평화로운 자유 대한민국이 있습니까?
- 그렇다면 죽지 못해 살아가는 공산 독재 왕조 세습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습니까?
- 과연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은 누가 왜 이렇게 만들어 갑니까? -국민 여러분들은 자유와 평화를 포기하고 개 돼지로 살고 있습니까?
-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 오늘의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이 꿈꾸던 나라입니까?
- 어떤 꿈과 희망이 남아있습니까? 누구 말처럼 개천의 봉어 가재 미꾸라지 울렁이로 그냥 그렇게 N포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 지금 여러분의 가슴에 70~80년대의 젊은이들이 가졌던 꿈과 이상과 애국심과 용기가 있습니까?

【30만 목사와 7백만 기독교인들에게 묻습니다】

- 지금의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무엇입니까?
- 1년 반 동안 드러본 소위 비대면 예배의 결과는 무엇이며 이대로 좋습니까?
- 그 큰 예배당에 19명 20명 10% 20%의 성도로 예배드릴이 주의 종으로서 자괴감도 없습니까?
- 정녕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 이 정권이 끌어들이 트로이 목마들의 실체를 아십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결의】

- 우리는 트로이 목마와 같이 교묘한 음모가 숨겨져 있는 모든 악법들의 제정 및 개정을 결사 항쟁으로 반대한다.
- 우리는 그 어떤 이유로도 자유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의 변질을 결사항쟁으로 저항한다.
- 우리는 더 이상 코로나 정치 방역으로 교회가 통제 압제 당하거나 예배의 행방을 거부하며 정상적인 예배를 드린다.
- 우리는 그 어떤 경우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김과 그의 영광이 손상됨을 용납할 수 없다.
- 우리는 오늘의 총체적 난국과 한국교회의 상황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명으로 행한 결과이며(마7:22~23) 하나님의 보응임을 알고 먼저 통회 자복으로 회개한다.
-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이단을 제외한 교파를 초월한 모든 총회와 각급 기독교 단체들이 같은 날 같은 기간 같은 방법으로 일제히 미스바와 같은 '한국교회 대 각성 회개'의 주관을 선포, 실시하기를 요구하며 이 일을 각 교단 총회장들이 연합하여 주도 해 나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는 이 모든 결의 사항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사각오(一死覺悟)로 일치단결하여 이제부터 단계적으로 행동할 것을 천명한다.

주후 2021년 8월 25일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경북 기독교 총연합회, 대구 목회자 연합회 일동

회장:김문훈 목사 총장:강안실 목사 회장:이우탁 목사 총장:김형민 목사 회장:박종희 목사 총장:김성권 목사 회장:신재영 목사 총무:김대원 목사 회장:이상민 목사 총장:김상현 목사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 진리교회 편서

주여! 기도하오니...



주님!
허물로 죽은 인생들 가운데
제 손을잡아 빛을 쫓는 인생이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광야같은 인생길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 아침 말씀 하십니다.

내가 묵는 장막은
한날 지나쳐야 할 나그네의 숙소
아무리 좋아도 잠시 지나쳐야 하는 곳
안식할 곳은 주님 계신 본향이라고...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을
계수해야 할 곳이 있다 하십니다.

주님앞에 치려야 할 공력심판의 날
거기를 지나지 않을 인생이 땅에 아무도 없다고...
주여... 심판의 불이 지날 때
주님앞에 남아있고 싶은 간절한 마음...

보혈로 구원받아 은혜로 살아온 인생
타버리고 싶지 않은 간절한 바람...
살아온 삶이 헛된 시간들이 아니길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 하나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영적 계층을 피워서는 안 될 이유...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나그네 인생길 중간쯤 와 있고
아직 끝이 아님을 알려주는 성령님의 음성! 두 손은 모은다.

한국교회, 아이티 지진 이재민들에 긴급 식량 전달

2천 2백여 명이 사망하고 1만 2천여 명이 다쳐

한국교회봉사단(한국교회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WA))는 3일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티 카바용 지역 이재민들에게 긴급 식량을 전달했다.



알려드립니다

2021년 부산신학교 목회자와 신학생을 위한 세미나가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오는 9월 9일(목) 경북 청도 순복음세움교회 수양관에서 개최 예정이던 2021년 부산신학교 목회자와 신학생을 위한 세미나를 준비하던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분과 접촉한 사실이 있어 코로나19 감염예방 감사를 받았

습니다. 응시료로 판정받았지만 2주간 자기격리를 시행하게 되어 예정된 9월 9일(목)에는 세미나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산신학교에서는 회원 여러분들에게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양해를 구하고 같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의 빠른 퇴치를 위해 기도를 당부드립니다.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지면을 통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선교협의회에 전달했다. 선교사협의회는 이 성금으로 3일 지진 피해가 심한 카바용 지역을 방문해 200여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쌀을 나누주었다. 선교사협의회는 이번 긴급식량 지원에 이어 지진으로 무너진 교회 재건에도 성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아이티 한국선교사협의회 회장 김원범 선교사는 이재민들에게 "한국교회가 아이티의 어려움을 잊지 않고 재건 가운데 있는 아이티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며 도움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아이티는 지난 1월 발생한 규모 7.2의 지진으로 현재까지 2천2백여 명이 사망하고 1만 2천여명이 다쳤다. 또 가옥 5만 3천여 채가 파괴되고, 이재민도 60여만명 발생했다.

사설

권력도 인간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다

세계를 지배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모신 알렉산더 대왕은 화합의 달인이었다. 그의 승리의 비결은 화합에 있었다. 상대를 죽이면 상대도 나를 얻는다는 죽이려고 달려들게 마련이다. 당대야 아니냐 후대까지도 알렉산더 대왕은 급하게 도주 하느라고 다리우스가 남긴 가족들, 다리우스의 모후 왕비, 왕녀들이 모두 포로가 되었으니 이들을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왕국으로 누리던 생활을 계속 누리게 해주었다.

다리우스의 국민들이 자연히 알렉산더 대왕에게 순종했음은 두 말의 여지가 없다. 적대 정산의 이름으로 피의 숙청을 감행할 때에 자살자가 4명이 나왔다. 수백 명이 감옥에 갇혔고 두 대령장들은 아직도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들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멈출 줄 모르고 일어나고 있다. 그것도 못에 한 번씩,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들고 도는 물레방아처럼 들고는 게 권력이다. 권력도 인간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다.

경로원을 다른 때보다 6명이나 더 늘린다고 퇴임 후가 안전해지는 게 아니다. 덕을 베풀어야 한다. 4년간 마구 뒤엎어 임명장정이 되어버린 나라, 탈권정, 소독주, 도성장, 부동신정책, 대북정책 등. 뒤엎린 거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잘못 안 되는 사람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아침을 즐기면 안 된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가만히 앉아서(家藏良藥), 국난시양성(國難時良相)- 집안이 가만히 있으면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어진 재상을 생각한다는 말이다.

세계 최고의 정복자 칭기즈칸도 1227년 호라즘 제국과의 전쟁에서 사슬을 공격당한 중 말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누구나 죽는다. 인류가 탄생하고 약 99%의 인구가 태어나고 죽었다. 어느 누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없었다. 세계적인 거장도 위대한 사람도 상으로 보지도 않는다. 한 나라에서 정해졌기 때문이다.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다. 죽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 하겠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당한 것"이라고. 그 후로는 심판이 있으리라(히 9:27) 다 죽는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겸손해야 한다.

안보 불감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프간 정부군은 미군이 철수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탈레반에게 나라 전체를 점령당하고 무기를 버려두고 돈다발만 챙기고 도망가기에 바빴다고 한다. 중국이다. 내 나라를 내가 지키지 않겠는데 누가 도울까?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아프간 정부의 패망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준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협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군의 위협이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동안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과 사회 발전을 이룩했다. 그런데 오히려 미국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한·미 군사 훈련도 제대로 못 하는 나라가 되었다.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74명 연립훈련을 반대한다고 나섰다. 대통령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이들은 누구를 위한 지도자인가? 미국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는 싸움 의지가 없는 나라를 위해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였다. 우리는 지금 좌파와 싸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지금 경제발전과 거시적인 평안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거기다 사회 여러 곳에서 사회주의 냄새가 나는 정객들이 난무하고 일부 국민들은 이것을 근거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극단적 이슬람으로부터 아프간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 피를

흘렸지만, 불과 며칠 사이에 그런 젊은 산산이 부서진 바람만 현실이 되었다. 대한민국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값비싼 훈련을 지출 수도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슬람과 공산주의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지 않는다. 이슬람은 그들 종교를 위한 국가이며, 공산주의는 그들 소수의 권력자들을 위한 체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만, 국민의 행복도 국가의 발전과 미래도 있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의 운명은 이웃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동맹국이 모두를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다. 우리 스스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호국의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지금 한국의 국경과 사회적 분위기는 뭔가 나사가 많이 풀려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성경에 보면 남유다(이스라엘)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할 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평화에 속고, 거짓 선물, 집, 우상숭배에 미혹을 당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무수한 경고에도 깨닫지 못하여 결국 패망의 고통을 뼈저리게 겪어야 했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기 기독교인들의 의식이 깨어나야 하고, 국민들이 안보불감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라도 아프간 소식은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님을 저들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제해준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 고문: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배성환

● 연락처: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일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www.ckfh.kr

산청한방가족호텔이 지리산을 품다!

For your Healthy Life

우리나라의 영산인 지리산 자락의 산청세계전통의학엑스포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 내에 위치한 고품격 가족호텔입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산, 숲, 계곡 그리고 세계전통의학엑스포 테마가 있어 더욱 즐거운 가족호텔.

전통한방의 체형과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청의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과 약선 음식을 통해 참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몸과 마음의 Healing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이상의 힘을 모아 한분 한분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진심어린 마음으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산청한방가족호텔은 지난 1월 25일(금) 현의원, 카페,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이 추가로 입점하여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고단 부사지명회, 증경회장 한영경 부사와 고영관 부사 등이 참석하여 축복과 발전을 기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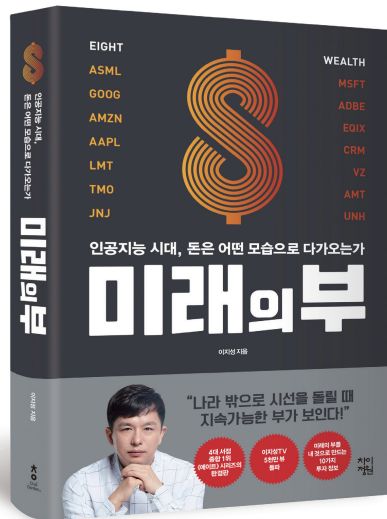
필봉동/왕산동(스탠다드 A, B)온돌, 단체룸)



허준동(원룸/단체)

예약문의 055)972-7000

52229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479번길 43

문의전화 02-334-7932 카이
이성민

이지성 지음 | 값 17,000원

이지성이 전하는 미래 경제에 관한 놀라운 통찰

미래의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석유는 데이터로, 부동산은 데이터센터로
모든 것의 정의가 새롭게 바뀌는 시대가 왔다!

“새로운 부로 올라타는 데
가장 좋은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2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감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익수를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익심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유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 ③ 전형료: 20,000원
- 한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2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전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질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 호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열심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등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부: 수시
- ② 원서교부처: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 접수: 수시
- ④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30,000원
- ②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www.ucts.org,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